



아버님을 思慕하면서

朴 奇 鴻

이 글은 朴奉石先生의 令息인 朴奇鴻氏가 六·二五에 拉北되신 先生을 思慕하는 斷腸의 悲哀를 안고 岡協誌에 寄稿한 全文이다. (寫眞. 젊은 時節의 朴奉石先生)

그리고 아쉬움도 於焉10年, 歲月이 흐르면 그림던 사람마저 잊는다하지만 막막한 北녁하늘가에서 고생하실 아버님의 幻像은 날이갈수록 더욱 그리워만 집니다.

아버님 모시던 그날 저는 한갓철없는 초립동이었던지라 그날의 追憶들을 일일이 記憶해 낼 수는 없으나 무척 仁慈하시면서도 때로는 嚴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음깊이 잊을 수 없는 것은 「山有花」라는 노래를 즐겨부르시던 일이라던지 花園에서 花草를 가꾸시며 즐기시던 일이라던지 밤이 깊도록 齋齋에 잠겨 무언가 깊이 思索하시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저의 아버지께서는 일지기 閑寂한 고을에 태어나 어려서 書堂에 다니시다가 12歲되던해 密陽公立普通學校에 入學하여 卒業을 하고는 15歲되던해 스스로 느낀바 있어 40리나되는 山길을 넘어 그곳 表忠寺에 來往하면서 스님에게 글을배웠으며 18歲되던해 스님의 經濟的周旋으로 中央高等普通學校에 入學하게 되자(4255年 4月) 대단히 기뻐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家計는 如前히 어려웠고 스님으로부터 多少의 經濟的惠澤을 얻는다고는하나 늘 不足하여 自活에의 길을 開拓함에 이루말할 수 없는 苦生을 치루었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歲月도흘러 23歲되던해 中央學校을 마치고(4260年3月), 곧 下鄉하여 密陽表忠普通學校에 敎員으로 被任되셨다가 다음해에 또다시 上京하여 當時 惠化專門學校에 入學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話題로는 아버님이 同校內에서 키가 제일 컸었다는 것이며 窮色을 免치 못하면서도 冊만은 부지런히 사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同校在學中 저의 어머니과의 婚談이 成事를 보게되어 처음으로 서울에 살림을 꾸며가기엔 많은 隘路가 介在하였으나 어질고 착하신 어머니의 精誠으로 아버지께서는 더욱 學業에 힘쓰시는 한편 圖書館界에도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惠化專門學校本科를 卒業하시던 그해 봄(4264年3月) 아버지께서는 朝鮮總督府圖書館 司書로 就任되는한편 다음날 저를 찾아들르 열게되어 무척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以後 아버지께서는 平生을 國立圖書館에 獻身할 決心으로 모친 倭政下에서도 圖書館業務 全般에 對한 知識을 習得鍊磨하는 한便 後日을 期하는 意味에서 館內圖書는 勿論 國內에 흩어진 各種文獻을 모아 이를 整理保存함에 餘念이 없었다 합니다. 日宿直을 하시는 날이면 어머니이 해주신 三食 도시락을 싸들고 제가 종종걸

음으로 아버님을 찾아가노라면 언제나 큼직한 冊床위에 많은 冊들을 쌓놓고 業務에 바쁘셨든 일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日本의 敗戰을 앞두고 空襲이 잦던 어느날 오밤중에 警報사이렌이 불자 주무시다 말고 저이들을 마루 밑 防空壕에 待避시킨後 徒步로 戰場에 달려가시던 일등으로 미루어 보아 圖書館業務에 얼마만한 情熱을 기울렸던가를 미히 짐작하겠습니다.

4278年8月15日 聯合軍의 勝利로 解放이 되자 아버지께서는 圖書館機構編成 및 運營面에 革新을 期하고자 當時 大邱에 계시던 李在郁先生님을 國立圖書館長으로 모셔오고 圖書館運營面에 있어서 先進國家의 文化를 導入하는 方便 國內의 人材를 모아 韓國圖書館으로서의 機構와 機能을 伸張하였습니다. 그리고 內的充實을 期하기 爲해 館內에 圖書館學校를 두어 이 方面에 뜻있는 後進을 指導養成하셨고 또한 圖書館協會를 처음으로 組織하여 國內各國圖書館과의 紐帶를 緊密化하여 文化交流를 促進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뜻있는 事業의 하나인 「韓國十進分類表」와 「東書編目規則」을 著述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公務多忙하신 가운데 自身の 專攻分野인 國史 特別 韓國佛敎史를 꾸준히 研究하여 「大藏經板彫造に對する 研究」라는 研究論文을 發表하는 등 이땅의 世畧을 養成하는 意味에서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國華女子初級大學을 創設하여 初代學長으로 被任되는 한편 東國大學講師로도 出講하셨고 또한 韓國佛敎青年團 團長으로 活躍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의 平和를 아사간 六·二五

動亂은 아버님마저 저이들과 生離別을 하게 하였으니 戰雲길은 7月13日(檀紀4283年) 아침 9時35分을 最後로 拉北되어 오늘날까지 消息이 漠然합니다. 떠나가시던 아침 「鴛鴦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사랑하여라 그리고 오늘저녁 꼭 돌아올 것이지마는 너에게 말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너는 어테를가나 많은 사람이 가운데 네가 엄연히 이땅에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 가운데 너라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착하며 誠實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가지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겨운 5年間の 軍隊生活를 通하여 비로소 그 말씀의 眞價를 깨달았고 따라서 人生行路에서 마음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아 참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왔고 오늘날까지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大學院을 修了할 段階에 이르러 비록 肉眼으로 비움직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한 가운데 그 모습은 더욱 뚜렷이 살아계시고 그앞에 저는 온갖 精誠과 努力으로相逢할 날과 自身の 成功을 굳게 盟誓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로지 藏書를 아끼는 마음과 圖書館에 對한 必死的인 굳은 責任感으로 因하여 避亂길을 뿌리친 것이 오늘과 같이 生離別의 結果를 가져 왔습니다. 子息으로서 斷腸의 눈물을 감출진 없나이다. 저는 現在 某大學圖書館에 勤務中이니 不足하나마 아버지 事業을 繼承한다는 意味에서 自慰를 얻고 있습니다.

筆者. 京畿大學圖書館司書